

제2막: 팀워크의 묘미를 배우다

저녁 식사 후 이어진 ‘레크리에이션’ 시간은 이번 워크숍의 백미였습니다. 직급과 나이, 소속 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은 ***‘에어봉 릴레이’***였습니다. 긴 에어봉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여러 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 반환점을 돌아오는 이 경기는 혼자만 잘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. “하나, 둘! 원발, 오른발!” 팀장님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령에 맞춰 신입 주무관이 발을 내디뎠습니다. 마음이 급해 스텝이 꼬일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잡아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. 넘어질 듯 위태로운 순간을 웃음으로 넘기며 결승선에 들어오는 순간, 직원들은 깨달았습니다. 우리가 하는 세무 행정 역시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, 동료와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지탱해 줄 때 비로소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

제3막: 팀워크의 묘미를 배우다

이튿날 아침, 우리는 화채 그릇을 닮은 독특한 분지 지형인 양구 편치볼을 찾아 대자연의 신비를 감상했습니다. 이어 양구수목원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폐부 깊숙이 피톤치드를들이마셨습니다. 숲이 주는 맑은 공기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. 여성의 마지막은 편안한 휴식 공간인 인필드에서의 티타임이었습니다. 딱딱한 회의 테이블이 아닌 감성적인 공간에서, 직원들은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가족, 취미, 고민을 나누었습니다. “과장님께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”라는 대화 속에 ‘상사’와 ‘부하’가 아닌 ‘동료’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짹텄습니다.

에필로그: 행복한 공무원이 만드는 친절한 강남

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, 그 효과는 강렬했습니다. 워크숍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직원의 93%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.

“동료들과 발을 맞추며 크게 웃었던 기억으로 다시 일할 힘을 얻었습니다.”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. 지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,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구민을 향한 친절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. 양구에서 채워온 맑고 건강한 기운으로, 강남구 세무 공무원들은 이제 구민을 위해 다시 힘차게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.